

# SOY BIBLIOTECARIA DE COREA

## -저는 한국에서 온 사서입니다-



오현주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사서  
ohwdy81@naver.com

도미니카 공화국은 지형적으로는 카리브해 연안국가이고, 문화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다. 아이티(영어로는 하이티)와 섬을 반반 나누어 이웃하며 살고 있으며, 인종은 몰라토(백인과 흑인의 혼혈)가 70%, 백인이 20%, 흑인이 대략 10%정도이다.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때 처음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 바로 옆에 있는 이 곳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한다. 스페인의 지배를 100년 넘게 받아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98%가 가톨릭을 믿는다.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로 1시간, 뉴욕에서 4시간 거리에 있어서인지 남미 전체가 축구에 열광하는데도 유독 이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만은 야구에 열광한다. 2006 WBC(World Baseball Classic)때도 도미니카 공화국을 피하려 미국이 대진표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전세계에서 5성급 호텔이 가장 많은 나라, 배우 브래드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결혼식을 올린 나라, 밥할 때 식용유와 소금을 사용하는 나라, 동네구멍가게만 가도 메렝게와 바차타 음악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는 나라, 그 곳이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카리브해의 진주, 도미니카 공화국이다.

내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온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2개월은 그냥 현지적응훈련기간으로 치면 내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었다는 애긴데, 그 1년 동안 내 임지는 3번 바뀌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내겐 행운이었다. 첫 번째 도서관은 딱 3일만에 문을 닫았다. 도미니카 공화국 3대 공공도서관 중의 하나인 이 도서관에서 날 요청했다고 분명히 그랬고 가기 전에 만난 도서관장도 나에게 아주 호의적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다. 사실 문을 닫았다는 표현보다는 리모델링을 위해 7개월정도 문을 닫는다고 했다. 파워가 센 도미니카 공화국의 영부인(Primera Dama)이 건물을 쓰길 원하여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 덕에 내가 옮겨가

게 된 곳은 도미니카공화국 국립도서관으로 정식 명칭은 Biblioteca Nacional Pedro Henríquez Ureña(비블리오페카 나시오날 페드로 엔리케쓰 우레나)이다. 이 곳으로 임지가 바뀌면서 국제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행운도 함께 만났다. 도서관 소개는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내가 참여했던 각종 행사와 교육을 소개하려고 한다.

### ABINIA(중남미국립도서관장회의)

매년 중남미에서는 국립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운 좋게도 2007년 10월의 개최지는 이 곳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였다. 국제행사에서 영어가 단 한마디도 쓰이지 않았다. 영어가 없는 국제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동일한 언어에서 오는 동질감은 남달랐다. 거리는 미국과 더 가깝지만 스페인을 더 많이 쫓아간다. 그래서 그들을 라틴아메리카라고 하나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개최국인 도미니카 공화국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고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페인, 미국 등이 참석했다. 아시다시피 흔히 우리가 라틴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중남미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한국에서도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많이 투입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조금은 더디게 진행된다.



ABINIA(중남미국립도서관장회의)의 웹사이트 <http://www.abinia.org/>

참가국들이 자신의 국가 도서관에 대한 소개, 성과 및 비전 등을 제시한다. 2007년에 가장 큰 관심과 호응을 끌어 낸 발표는 칠레의 디지털 도서관 메모리아 칠레나(Memoria Chilena)와 콜롬비아 공원도서관 사례였다.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남미국가는 아직 전산화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8년에 비로소 이 곳 국립도서관도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다. 메모리아 칠레나 같은 디지털 도서관은 이들에게 디지털 도서관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준 것과 같았다. 내가 몸 담고 있었던 도서관의 부관장도 내게 자신은 “메모리아 칠레나 같은 메모리아 도미니카나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http://www.memoriachilena>  
칠레의 디지털도서관 메모리아 칠레나(Memoria Chilena) 웹사이트

콜롬비아의 발표 주제는 어찌면 내가 더 빠져 들었는지도 모른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하고 물으면 아마 절반은 커피, 나머지 절반은 청부살인이라고 할 지 모르겠다. 그 만큼 콜롬비아에서는 흔하게 청부살인이



다. 총성이 불꽃놀이झ으로 인식되는 나라, 그 곳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도서관 설립 운동이 그 살인률 마저도 낮추고 있는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 공원은 늘 마약과 총성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밤은 물론이고 낮조차도 시민들이 그 곳에 가는걸 꺼려했다. 정부는 그 곳을 도서관 설립지역으로 정하고 공공도서관 하나를 지었다. 물론 공원도 정비했다. 그래서 이름이 공원도서관(Parque Biblioteca)이다.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다. 도서관 하나로 인해 공원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진 것이다.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숙제를 하러 가고 엄마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기 시작한 것이다. 콜롬비아는 이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개가 넘는 공원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도서관 건물도 각 도시에 따라 특색있으면서도 공원과 어울리게 설계했다. 공원에 뚝 튀어나와있는 건물이 아니라 공원의 상징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ABINIA(중남미국립도서관장회의)에 참석하여  
ABINIA 대회 실무자 소로코(왼쪽)와  
많은 박수를 받은 콜롬비아공원도서관 발표자(오른쪽)와 함께

도착한 지 4달이 채 안되서 참석하였으므로, 부족한 스페인어를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귀머거리, 병어리로 눈치 하나 믿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기회가 지금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Internacional Feria del Libro(국제 도서전)

매년 4월이면 도미니카공화국이 한바탕 들썩인다. 문화라곤 오로지 술을 마시면서 메랭게, 바차타, 살사를 추는 것이 전부인 그들에게 '국제도서전'은 책이란 주제를 가진 문화 아이템의 축제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차를 타고 몰려들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국립극장, 국립도서관(현재는 리모델링 중이다), 박물관이 모여있는 곳에서 개최되는데 국립극장에서는 이 대회기간 동안 무료 공연도 많아 축제의 흥을 한층 돋군다. 국립, 공공, 대학 도서관들의 홍보의 장이고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속해 있던 국립도서관도 큰 부스를 마련해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소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리모델링 이후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 계속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국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소개했다. 8개월 넘게 일한 나도 너무 생소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내가 한국에 돌아가도 아마 도서관 리모델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도서관 홈페이지도 국제 도서전을 위해 임시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아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그런 것 같다. 대선 이후엔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바뀌는 나라라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재선을 노리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현 정부의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국립도서관 부스보다는 한국 부스에 주로 있었다.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알리기의 일환으로 부스를 마련했다. 한글로 본인 이름 써보기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한글을 설명해 주면 반침이 없는 이름은 아주 쉽게 따라 쓴다. 항상 옆으로만 쓰는 그들에게 우리의 받침은 너무나 어렵지만 한번에 나는 소리가 하나의 글자가 된다고 음절을 설명해주면 과학적이라고 감탄하곤 했다. 열심히 소개하고 홍보해도 “china” 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난 한국인이야, 중국인 아니야” 아무리 설명해도 “어, 알았어. 차냐, 근데 너무 닮았어.”라고 속을 박박 긁고 간다. 한국은 몰라도 남한에서 왔는지, 북한에서 왔는지 꼭 물어보는거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은 결국 분단국가로만 기억된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국립도서관에서 한복을 입고 코워커들과 함께

## OCLC 교육

드디어 이곳도 도서관 전산화 작업의 물살을 탔다. 나도 덩달아 신바람이 났다. 드디어 책면지와 안녕이다. 서가에서 의사기운같은 흰 가운에 마스크, 장갑까지 끼고도 콜록거렸던 내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멕시코에서 온 강사가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프로그램 교육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팀은 Procesos Tecnicos이다. 한국어로 하면 분류, 목록팀인데 전산화 작업팀이라고 해야 하나 정확한 표현은 사실 잘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난 생각한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이곳은 아직 문헌정보학과가 정식으로 없다. 한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3년동안 공부한다고 한다. 우리와 같은 학사가 아니다. 그래도 다들 배경지식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2군데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립도서관보다는 대학도서관들이 먼저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서인지 처음이 아닌 사람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은 시종일관 질문의 연속이었다. 적극적인 사람들, 그동안 같이 일했던 내가 서가 3개 혼자 정리할 동안 3명이서 서가 1개 정리하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덕분에 말 못하는 나를 사람들은 머릿속에 든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안쓰럽게 바라봐 주셨다. 유학생을 보는 듯이.

OCLC의 교육을 받으며



사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일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시 이곳은 성질 급한 한국과는 틀리다. 교육이 끝나고 정말 OCLC를 이용해 전산화 하는 작업은 3개월이 지나서 해가 바뀐 2월이었다.

### Capacitación de Bibliotecarios(사서 교육)

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곳 대학에는 문헌정보학과가 없다. 다만 목록, 분류 등을 부전공처럼 공부한다. 요즘은 정식 학위가 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정식학과 인증을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원래 일하고 있던 사서들이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누구의 딸, 옆집 아들,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 들어 온 사람들이다. 개발도상국의 장점은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이들도 기본적으로 사서가 알아야 할 지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도서관에서는 사서 교육을 한다. 2월부터 시작하여 벌써 7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도서관에서도 부스 한켠에서 수업을 할 정도로 열심이다. 강사는 주로 쿠바에서 초빙된다. 언어, 지리적인 면 등 여러 분야에서 강사가 초빙되는데, 쿠바가 개방이 안되서 그렇지 분명 지식강국임에 틀림없다. 처음에 분류, 목록, 서지학, 참고봉사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까지 교육한다(우리로 치면 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다). 나이는 19살부터 60세가 넘는 분까지 다양하다. 우리 팀은 무조건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 팀 동료들에게 질질 끌려 간 첫 수업은 “목록이란 무엇인가”란 시험이었다. 백지를 내야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강사가 한국어로라도 쓰라고 해서 한국어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웬걸? 도저히 쓰지를 못하겠다. 한 3줄 쓰고 내 자신한테 실망하고 나오는데 동료들이 “넌 한국에서 다 배웠으니까 다 알지?” “넌 학사학위도 있잖아!”라고 하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이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내가 많이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다양한 분류표를 소개하는데 한국십진분류법(KDC)얘기도 하고 싶어서 내가 발표하겠다고 우겨서 했건만 안되는 스페인어 때문에 우리팀 동료들은 불안해서 어쩔줄 몰라하고 내가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일어서서 덧붙여 설명해주기도 했다. 지금은 또 도서관을 옮겨 빈민촌에 있는 도서관으로 옮겨졌지만 이곳에서 일했던 경험이 내겐 작은 시야가 아니라 이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전체의 도서관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08)

